
업체탐방 : 창림전자(주)



〈회사개요〉

상 호 : 창림전자(주)
대표이사 : 남 기 철
본 사 :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481번지
전 화 : 0342) 757-8008
주생산품목 : PCB ASS'Y
설립연도 : 1990년 3월



남 기 철

대 표 이 사

P CB Ass'y 업체인 창림전자(주)의 남기철 사장은 요즘 신이 나 있다.

최근 남사장이 만든 창림전자(주)가 설립한 지 2년 3개월만에 PCB Ass'y에 연 1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의 이러한 성장은 기술개발, 품질보중에 정성을 쏟은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남보다 앞서가는 기술개발과 품질제일주의에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며 남사장의 기술개발 의욕은 남다르다고 업계는 평하고 있다.

인화단결, 자기개발, 품질향상 이라는 사훈에서 보듯이 이러한 정평은 전직원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최고의 회사를 만들기 위한 생산라인의 전직원들의 모습에서 알게 된다.

성 남시 수정구 소재 창림전자(주) (대표 : 남기철 사장)는 '90년 3월에 설립, 오늘날

PCB 생산은 물론 부품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91년 동두천 공장을 설립 업계 선두주자로 나서길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회사의 신상명세서다. 창립전자(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PCB Ass'y 조립을 위한 SMT (표면실장기), PCB 투입부터 Ass'y조립까지 Line system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영창악기(주)의 미국 및 유럽의 전자악기 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던 디지털 피아노의 신모델인 (K-2000)는 창립전자(주)에서 공급한 초정밀 기술집약형 부품이어서 그 진가를 더해 주고 있다. 이렇듯 창립의 전가죽은 우수한 인력에 의해 정밀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 회사가 또한 역점을 두는 생산과정에 대한 특징은 생산제품이 정전기에 민감한 반도체부품이 주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전기 매트를 설치하고 각 개인의 손목띠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자동납땜시설은 각라인에 따라 배치하여 효율적인 PCB 생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제품 조립라인, 자재관리, 공정관리, 생산기술, 검사 등의 완벽한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남사장의 신념인 적정 최고의 품질 유지와 생산성을 높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기술과 품질로 이 회사는 현재 추진 중인 중동지역과의 전화기 OEM 수출을 따내 라인증설과 함께 연매출 약 2배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제품을 신뢰 할 수 있도록 충격, 고저온, 고습도 등 신뢰성 장비를 도입 완비함으로써 수요자의 품질 요구에 만족하는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초소형부

품까지 작업하는 SMT라인을 구축 고속 일괄생산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도록 운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또 창립전자(주)는 향후 예견되는 고임금, 기술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Axial Machine을 비롯하여 Radial Machine, Dip Machine 등 부품자동삽입기를 도입하여 공정별 자동화 및 완전자동화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특 히 남사장은 「전자제품의 경량화 소형화, 저전력화, 고기능화로 발전함에 따라 조립해야할 부품들이 표면실장용 부품으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SMT 라인을 증설 고부가가치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그의 경영전략을 밝힌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부품공급이 적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어려움으로 하소연 한다.

부품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중단 사태가 속출하는 시점에서 제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제가 구축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이 회사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공통점을 안고 있어 고임금·기술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력 채용도 허용이 됐으면 합니다」며 남사장은 피력해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 그냥 알아만 있기를 거부한다고 무언가 해 내야겠다는 것이 이 회사의 움직임이다.

PCB 분야만큼은 기술과, 품질에서 제1인자로 발전시키는 끊임없는 노력에 이들은 승부를 걸고 있다.